

우리나라 임상수의사의 현황과 그 대책

정 창 국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서 론

본인은 우리 나라에서 임상수의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나라 임상수의사 여러분의 현황을 좀더 깊이 파헤쳐 실제로 우리 나라 임상수의사가 현직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수의사인 스스로에 대해 어떤 意識을 갖고 있는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임상수의사에 대한 사회나 가정의 태도는 어떠한가 등 임상수의사의 현황을 본 질문서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임상수의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나 자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자료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임상수의사 여러분의 다양한 시간을 빼앗는 질문서를 드렸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미숙하여 일부에서는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점도 있었고, 또 질문에 대한 답을 분석 평가하는데 사견이 개입되었을 염려도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충고 지적하시면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서에서는 표본의 성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대도시의 소동물 임상수의사에 대한 질문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에서 얻어진 자료를 기초로 우리 나라

임상수의사의 현황을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결과 및 고찰

질문서 400여통을 발송한 중에서 1981년 8월 25일 현재로 접수된 답은 200통이었다.

이를 각 도별로 구분하면 경기도가 17.5%로 35명, 경북과 경남이 각각 15%로 32명씩, 그리고 충남이 12%로 24명의 순으로 높았다.

개업 기간을 물은 질문에 대한 분은 200명이었으며, 표 1 과 같다. 「10~15년 미만」이 26.5%인 53명으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이 「5~10년 미만」이 23.5%로 49명, 「1~5년 미만」이 20.5%로 41명, 「15~20년 미만」이 17.5%로 35명

표 1. 개업 기간(200명)

연 수	인 원	%
1~5년 미만	41	20.5
5~10 "	49	24.5
10~15 "	53	26.5*
15~20 "	35	17.5
20~25 "	17	8.5
25~30 "	4	2.0
30년 이상	1	0.5
계	200	100%

의 순이었고 30년 이상이 0.5%, 1명이었다.

전반적으로 보면 30대의 개업 수의사가 5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개업 수의사의 연령층은 비교적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업 수의사의 월 평균 순수입(표 2)에 답한 분이 200명으로서 「50만원 미만」의 수입이 63.0%인 1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50~100만원 미만」이 32.0%인 64명이었고 「100~150만원 미만」이 4.5%로 9명, 「150~200만원 미만」이 1명, 200만원 이상은 1명도 없어서 비교적 낮은 진료 수입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 평균 월수입(순수입)

수입금	인원	%
50만원 미만	126	63.0
50~100만원	64	32.0
100~150 "	9	4.5
150~200 "	1	0.5
200만원 이상	0	0.0
계	200	100%

병원 건물의 소유(표 3)는 「자가」가 54.8%인 109명, 「전세」가 30.1%인 60명, 「월세」가 14.6%인 29명으로 자가 소유의 병원을 운영하는 분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세 또는 월세로 병원을 운영하는 분은 편리상 주택은 자가이면서 병원만을 임시 대여하고 있는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여 건물 소유 관계는 비교적 만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3 병원 건물의 소유

건물소유	인원	%
자 가	109	54.8
전 세	60	30.1
월 세	29	14.6
기 타	1	0.5
계	199	100%

임상수의사의 기동력(표 4)에 답한 분이 199명이었다. 이들 중 「승용차」를 운영하신 분이 20.1%로 40명, 「소형 트럭」을 소유하신 분이 12.1%인 24명, 「오토바이」를 소유하신 분이 62.3%인 124명으로 나타나 있어 자동차로 왕진하는 분보다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분이 2배나 많았다. 이것은 시골의 불편한 도로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보겠으며 32.2%의 개업 수의사가 자동차를 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경제적 여유를 성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

표 4. 임상수의사의 기동력

기동력	인원	%
승용차	40	20.1
소형트럭	24	12.1
오토바이	124	62.3
자전차	7	3.5
기타	4	2.0
계	199	100%

개업수의사로서의 만족도(표 5)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다」가 1.0%인 2명, 「만족하다」가 14.5%인 29명, 「비교적 만족하다」가 34.0%로 68명, 「만족하지 않다」가 50.5%인 10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아마도 비교적 적은 월수입, 개업수의사의 장래성, 사회적인 지위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표 5. 개업수의사로서의 만족도

만족도	인원	%
매우 만족	2	1.0
만족	29	14.5
비교적 만족	68	34.0
만족하지 않음	101	50.5
계	200	100%

개업수의사의 장래성(표 6)에 대해 답한 분

은 198명으로 「매우 희망적이다」가 1명, 「희망적이다」가 14.1%인 28명, 「그저 그렇다」가 54.0%인 107명으로 가장 높았고, 「비관적이다」가 31.3%인 62명으로서 임상수의사의 장래성이 현상 유지거나 또는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산업의 부진, 수입면에 있어서의 불만 등이 심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6. 개업수의사의 장래성

장래성	인원	%
매우 희망적	1	0.5
희망적	28	14.1
그저 그렇다	107	54.0
비관적	62	31.3
계	198	99.9%

개업수의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답한 분이 199명이었다. 사회적 지위를 「상」으로 생각하는 분이 7.9%로 14명, 「중상」으로 생각하는 분이 31.7%인 63명, 「중」으로 생각하는 분이 51.3%인 102명으로서 개업수의사 자신이 생각하는 주관적 판단은 사회적 지위를 「중」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축주로부터 받는 존경과 신임도(표 7)를 「매우 높다」로 답한 분이 5%인 10명, 「높다」로 답한 분이 57.5%인 115명, 「보통이득」이 35.5%인 71명으로 임상수의사가 주관적으로 축주로부터 받는 존경도와 신임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7. 축주로부터 받는 존경과 신임도

존경과 신임도	인원	%
매우 높다	10	5.0
높다	115	57.5
보통이다	71	35.5
낮다	4	2.0
계	200	100%

주된 진료 대상 가축(표 8)의 물음에 답한 분이 199명이었다. 이 중 「젓소」가 16.1%로 32

명, 「한우」가 11.1%로 22명, 「돼지」가 2.0%로 4명, 「한우 및 돼지」가 24.6%로 49명, 「가축 전반」이 42.7%로 85명이어서 젓소, 한우, 그리고 돼지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임상수의사의 수보다 여러 가축을 종합적으로 치료하는 임상수의사의 수가 2.5배나 더 많음을 알 수 있어서 가축별 전문 치료는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주된 진료대상 가축

대상 가축	인원	%
젓소	32	16.1
한우	22	11.1
돼지	4	2.0
개	6	3.0
한우와 돼지	49	24.6
가축 전반	85	42.7
기타(야생)	1	0.5
계	199	100%

진료 지역내에서의 가축 두수와 수의사 수와의 비율(표 9)에 관한 질문에는 197명이 답하였다. 「가축수에 비해 수의사의 수가 많다」고 생각하는 분이 39.1%인 77명, 「알맞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37.6%로 74명, 「가축 두수에 비해 수의사의 수가 적다」고 생각하는 분이 23.3%로 46명이었는데 가축수에 비해 수의사의 수가 많다고 생각하는 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9. 지역내에서의 가축 두수와 수의사와의 비율

수의사의 수	인원	%
많다	77	39.1
알맞다	74	37.6
적다	46	23.3
계	197	100%

병원 기본 기재의 소유 정도(표 10)에 답한 분은 199명이었다. 「냉장고」를 소유한 분은 99.5%, 「현미경」이 49.2%, 「소독기」 86.4%, 「혈구 계산기」 10%, 「해모글로빈 측정기」 5.0%,

「원심분리기」 6.5%, 「스펙트로포토메타」 1.0%였다. 인의개인병원에 있어서는 사실 임상병리검사소에 가검물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상수의사는 개업하는 입지적 조건 교통편으로 보아 가검물 의뢰가 힘들므로 최소한 혈액치 및 기생충 검사 정도는 단독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 나타난 기본검사를 위한 기본 기기의 소유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표 10. 병원 기본 기재의 소유 정도(199명)

품 명	인 원	%
냉장고	198	99.5
현미경	98	49.2
소독기	172	86.4
혈구 계산기	20	10.0
Hb 측정기	10	5.0
원심분리기	13	6.5
스펙트로 휘토미터	2	1.0

일반외과 수술기기의 소유 정도(표 1)에 답한 분은 199명이었다. 「대수술에 필요한 기기」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24.6%로 49명, 「중수술에 필요한 기기」는 41.2%로 82명, 「소수술에 필요한 기기」는 34.2%로 68명이었다. 수의임상에서는 내, 외, 산과 등으로 진료 과목의 전문화(전문의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수술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과 질병의 종류도 그다지 많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기술을 익히고 충분한 기술기재를 보유하고 있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표 11. 일반외과 수술기기의 소유 정도

수 술 기 기	인 원	%
대수술에 필요한 기기	49	24.6
중수술에 필요한 기기	82	41.2
소수술에 필요한 기기	68	34.2
계	199	100%

휴대용 진단 및 처치 기기의 소유도(표 12)에 답한 분이 186명이었다. 이들 중 「금속탐지기」

가 11.8%, 「위즈 채취기」 11.8%, 「이물 적출기」 24.7%, 「유방염 검사기」 35.5%, 「유두 수술기기」 42.7%, 「난산 처치기」 60.1%, 「자궁 세척기」 85.9%를 각각 소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치료기기의 소유도는 임상수의사로서 상당히 미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표 12. 휴대용 특수진단 및 치료기기의 소유도(186명)

기 기	인 원	%
금속탐지기	22	11.8
위즈 채취기	22	11.8
이물 적출기	46	24.7
유방염 검사기기	66	35.5
유두 수술기기	85	42.7
난산 처치기	119	60.1
자궁 세척기	170	85.9

임상병리검사의 실시 정도에 답한 분이 182명이었다. 이들 중 「검사를 한다」가 36.3%로 66명, 「안한다」가 63.7%인 11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수의사가 진단 및 예후의 판정에 과학적 방법을 구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수술 능력의 정도(표 13)에 답한 분은 199명이었다. 「헤르니아 수술」이 88.9%, 「질탈수술」

표 13. 수술치료 능력의 정도(199명)

수 술 명	인 원	%
일반창상봉합	177	88.9
헤르니아수술	157	78.9
질탈 수술	133	66.8
제 1 위 절개술	118	59.3
제 왕 절개술	105	52.7
지 절 단 술	96	48.2
유방 및 유두수술	77	38.7
직장질루수술	47	23.6
안과 수술	37	18.6
제 4 위 전위증	28	14.0
장문합술	19	9.5

66.8%, 「제 1 위전개술」 59.3%, 「제왕절개술」 52.7%, 「제절단술」 48.2%, 「유방 및 유두 수술」 38.7%, 「직장질루수술」 23.6%, 「제 4 위 전위증 교정술」 14.0%, 「장문합술」 9.5%로 나타났다. 수술 능력의 우열은 수의사의 수입과 축주로부터 받는 신뢰도와 직결될 수 있는 것으로서 앞으로 더 한층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치료상 국내 생산 수의약품의 충족도를 묻는 질문에 답한 분은 199명이었다. 「충분하다」 24.6%인 49명이었고 국산 약품만으로는 「불충분하다」가 75.4%인 150명으로 나타나 국산 약품만으로는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수입약품의 의존도(표 14)에 답한 분이 199명이었다. 수입 약품의 의존도가 높다고 답한 분이 20.1%로 40명, 적다가 64.3%인 128명이었고, 전혀 쓰지 않는다가 15.6%인 31명이었다. 따라서 84.4%에 해당하는 수의사는 다과를 막론하고 가축 질병 치료에 수입 약품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수입약품의 의존도

의존도	인원	%
많다	40	20.1
적다	128	64.3
전혀 없다	31	15.6
계	199	100%

약품 가격의 타당성에 답한 분은 199명이었다. 「비싸다」고 답한 분이 57.8%인 115명, 「적합하다」고 답한 분이 18.1%인 36명, 「그저 그렇다」가 23.1%인 46명, 그리고 「싸다」가 1.0%인 2명으로 나타나 과반수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수의약품을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다.

진료수가로 인한 축주와의 의견 대립(표 15)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한 분은 195명이었

표 15. 진료수가로 인한 축주와의 의견 대립

유무	인원	%
있다	101	51.8
없다	94	48.2
계	195	100%

다. 어떤 형태이건 「의견 대립이 있다」가 51.8%인 101명, 「없다」가 48.2%인 94명으로 나타나 임상수의사의 과반수가 수가 문제 때문에 축주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치료비의 영수 상황(표 16)에 답한 분이 200명이었다. 「현금으로 영수한다」으로 답한 분이 62.0%인 124명, 「외상」이 18.0%인 36명, 「물건으로 받는다」가 2.5%인 5명, 「못받는다」가 17.5%인 35명으로 치료비 영수 상황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치료비 영수 상황

영수방법	인원	%
현금	131	59.0
외상	43	19.4
물건	5	2.3
못받음	43	19.4
계	222	100.1%

축주에 대한 약품직판이 진료에 미치는 영향에 답한 분이 199명이었다. 「지장이 많다」가 88.9%인 177명이었고, 「큰 영향이 없다」가 10.0%인 20명, 「영향이 없다」가 1.0% 2명으로 나타나 제약회사에서 축주에게 약품을 직판하는 행위, 그리고 약국에서 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임상치료상 그리고 수입상 큰 지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축주에 대한 약품 직판이 부적절한 이유(표 17)에 답한 분이 196명이었다. 「약품의 남용 때문에 곤란하다」가 65.3%인 128명, 「약품의 내성이 염려된다」가 23.5%인 46명, 「번식장애를 일으킨다」가 11.2%인 22명이었고, 「무관하다」는 답은 한 명도 없었다. 따라서 약품의 직판은 임상수의사 모두가 부적절한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

표 17. 축주에 대한 약품 직판이 부적절한 이유

이유	인원	%
약품의 남용	128	65.3
약품의 내성	46	23.5
번식장애	22	11.2
계	196	100%

불법진료의 유무에 답한 분이 195명이었다. 「불법진료를 하고 있다」가 82.1%인 160명, 「없다」가 17.9%로 35명으로 나타나 있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불법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불법진료 행위자의 구분(표 18)에 답한 분이 200명이었다. 수의사가 본 불법진료 행위자는 인공수정사(22.0%)로 44명, 축주 및 목부가 타목장에서 행하는 진료 행위가 「40.0%」로 80명, 무면허 침구사 「28.5%」로 57명, 기타가 「9.5%」로 19명이었다. 따라서 모든 임상수의사는 모든 지역내에서 불법진료가 행하여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표 18. 불법진료 행위자의 구분

구 분	인 원	%
인공수정사	44	22.0
축주 및 목부에 의한 타목장에 대한 진료 행위	80	40.0
무면허 침구사	57	28.5
기 타	19	9.5
계	200	100%

불법진료가 개업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답한 분이 194명이었다. 「영향이 매우 크다」가 13.4%인 26명, 「상당한 영향이 있다」가 37.6%인 73명, 「약간의 영향이 있다」가 29.9%인 58명, 「문제되지 않는다」가 19.1%인 37명으로 나타나 있다. 임상수의사 전원이 불법진료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부분적으로는 불법진료를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80% 정도의 수의사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임상연수교육의 필요성에 답한 분이 199명이었다. 연수교육을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답한 분이 52.7%인 105명,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5.7%인 91명, 「필요없다」고 부인하는 분이 1.5%인 3명으로 나타나 있어 개업수의사에 대한 연수교육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

받고자 하는 연수교육의 구분(표 19)에 답한 분이 196명이었다. 「임상학 전반적 교육」을 원하는 분이 34.7%인 68명, 「전공별 특수 교육」을 원하는 분이 44.9%인 88명, 「계통별 질병 교육」을 원하는 분이 20.4%인 40명으로 나타나 각 전공별 특수교육을 원하는 분의 수가 가장 많았다.

표 19. 원하는 연수교육의 구분

교 육 구 분	인 원	%
임상학 일반교육	68	34.7
전공별 특수교육	88	44.9
계통별 질병교육	40	20.4
계	196	100%

수의임상학회 구성의 필요성에 답한 분이 196명이었다. 「필요하다」가 85.7%인 168명, 「필요없다」가 14.3%인 28명으로 임상수의사의 대다수가 대한수의사회내에 임상학회의 설치를 원하고 있었다.

남편의 직업에 대한 부인의 만족도(표 20)에 답한 수의사 부인의 수는 194명이었다. 남편의 직업을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14.9%인 29명, 「반반이다」가 60.8%인 118명, 「불만이다」가 24.2%인 47명으로 나타났다. 이 질문에서는 만족하지 않는 부인이 만족을 느끼는 분보다 월등히 많았고, 「반반이다」라고 답한 회색적인 답을 한 분이 대부분이었다.

표 20. 남편의 직업에 대한 부인의 만족도

만 족 도	인 원	%
만 족 하 다	29	14.9
반 반 이 다	118	60.8
불 만 이 다	47	24.2
계	194	99.9%

수의사인 남편에게 느끼는 부인의 애로점(표 21)에 답한 부인이 195명이었다. 「경제 문제 때문」에 애로를 느끼는 분이 24.6%인 48명, 「일정치 않은 생활의 리듬」 때문이라고 답한 분이 53.3%인 104명, 「사회적 지위」 때문에 불만을

느끼는 부인이 10.3%인 20명, 「가족, 친지의 이해 부족」이 1.5%인 3 명이었고, 「애로점이 없다」가 10.3%인 20명으로 나타났다. 시간적으로 일정치 않은 왕진이나 진료 때문에 가정 생활이 불규칙해지는 현상이 부인의 불평을 사는 가장 큰 요인이었고, 다음이 진료 수입이 많지 않은데서 오는 경제적 불만이 다음으로 높았는데 한편, 남편에게 별 애로를 느끼지 않는 분들도 있었다.

표 21, 수의사인 남편에게 느끼는 부인의 애로점

애 로 점	인 원	%
경제 문제	48	24.6
일정치 않은 생활의 리듬	104	53.3
가족, 친지의 이해부족	3	1.5
사회적 지위	20	10.3
없 다	20	10.3
계	195	100%

수의임상 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141명이 적절한 응답을 하였다. 1 명이 1~3 개항에 요구사항을 기술하였는데 이를 그 성격상 3 개 범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었다.

1. 임상수의사의 자질 향상에 관한 희망
2. 경제적 측면에서 주로 수의약품의 판매에 관계되는 사항
3. 바람직한 진료 방향의 설정 등이었다.

1 항에 답한 분은 140명으로서 답한 임상수의사의 거의 전원이 자질 향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요구되는 자질 향상의 방법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매년 2~3 회에 걸쳐 도별 또는 지역별로 실습 위주의 특수교육을 원하는 분(37명)
- ② 임상수의사를 위한 최근의 질병 정보, 연구 잡지 및 임상 서적의 발간을 희망하는 분(22명)
- ③ 수의임상학회를 설립하여 임상 위주의 학술활동을 전개하자. (30명)

④ 대학의 수의학 교육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질을 향상시키자. (11명)

⑤ 자기 스스로 학술적 노력을 함으로써 질을 향상시키자. (10명)

⑥ 임상수의사와 대학 임상교수와의 임상 집단회를 통해서 자질을 향상시키자. (5명)

⑦ 대학병원에 수련의 과정을 두어서 임상 전공 희망자에게 임상교육을 보장시키자. (5명)

2. 수의약품에 관계되는 사항에는 80명이 답하였고 이들의 희망적인 요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임상수의사에게 수의약품 판매권을 달라. (25명)

② 양측가에게 수의약품을 직판하지 말라. (22명)

③ 일반약국에서 수의약품을 조제 판매하지 말라. 또 호르몬제, 항생제, 주사제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 (17명)

④ 수의약품의 질을 보장하라. (6명)

⑤ 가축병원에 판매하는 약가와 일반약국에 판매하는 약가에 차등을 두어 달라. (4명)

⑥ 강습회 또는 지도소에서 축주에게 치료 처방을 교시하지 말라. (5명)

3. 바람직한 진료 방향의 설정에 답한 분이 72명이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① 수의사의 양산을 억제하라. (15명)

② 불법진료를 단속하고 벌칙을 강화하라. (13명)

③ 가축병원시설 근대화를 위한 용자를 고려해 달라. (14명)

④ 수가를 통일하고 과다경쟁을 피하자. (11명)

⑤ 가축병원을 통합운영하고 종합화하자. (6명)

⑥ 가축의료보험제도를 고려해 보자. (5명)

⑦ 공수의 및 축탁수의제도를 폐지하자. (6명)

⑧ 임상수의사 전원을 공의사로 임명하는 것을 고려해 달라. (5명)

이상을 총괄적으로 분석하면, 우리나라 개업수의사들은

- (1) 낙후된 축산업

- (2) 많지 않은 가축 두수
- (3) 과상적으로 내습하는 축산물의 가격 파동
- (4) 결과적으로 파생하는 축산업자의 생산 의욕의 감퇴
- (5) 수의직에 대한 사회의 인식 부족
- (6) 미비한 진료 시설
- (8) 많은 진료 노력에 반비례하는 적은 수입
- (8) 임상수의사간의 과다 경쟁

등 상당히 불리한 환경하에서 임상진료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들은 이러한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해 왔다. 우리들은 희망적이고 선망적인 관측에서 선진국 임상수의사들의 좋은 사회적 대접과 높은 경제적 수익을 부러워하면서 그들과 같은 수준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으로 발전된 세계 여러나라의 GNP를 참조(표 22)할 때 우리 나라의 경제적 조건은 매우 저조하다. 또 세계 주요 국가의 인구나 가축수를 참고(표 23)할 때는 우리나라 축산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가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그 나라의 GNP가 상승하고 축산이 발전하면 임상수의사의 활동 범위는 더 한층 확대된다. 반증적으로 임상수의사는 그 나라의 축산을 발전시켜 GNP를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저조한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의 대우를 바랄 수는 없다. 우리들은 앞날을 위해서 자신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축적시켜 앞으로 서서히 다가올 희망적 사회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 우리가 하는 일은 국가 재산을 보호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사업이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표 22 1978년도 주요국가 GNP/국민 1인당

국 명	단위 (\$)
스위스(Swiss)	13,850
덴마크(Denmark)	11,001
서독(W. Germany)	10,445
미국(U. S. A)	9,757
프랑스(France)	8,850
캐나다(Canada)	8,569
일본(Japan)	8,479
영국(England)	5,636
이태리(Italy)	4,618
자유중국(Rep. of china)	1,550
한국(Rep. of Korea)	1,279
필리핀(Philpine)	514

표 23. 1979년 세계 주요국가의 인구나 가축수 (UN 통계)

국 명	인구(万)	소(万)	돼지(万)	양(万)	말(万)
영국	5,500	1,300	770	2,960	14
프랑스	5,200	2,400	1,120	1,150	37
서독	5,300	1,400	2,130	1,130	37
캐나다	2,300	1,280	670	39	35
덴마크	500	300	800	5.6	6
오스트리아	2,500	2,900	220	13,000	44
뉴질랜드	300	910	53	6,000	7
일본	12,000	400	870	1	2.5
타일랜드	3,500	460	310	55	16
필리핀	4,100	180	970	3	33
한국	3,400	150	148	0.7	0.7
북괴	2,500	90	190	28	3.5
전 세계	—	12억	7.3억	10억	6천만